

# 홍천신문

2024년 12월 (제127호)

행복한 어르신! 가고싶은 복지관! 함께하는 지역복지!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윤재  
창간일 2014년 5월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 복지관 소식 (1)

### ‘아름다운 노년의 행복을 그린다.’ 제11회 발표회 및 제8회 작품 전시회 개최



11월 22일(금), 홍천군노인복지관은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아름다운 노년의 행복을 그린다’라는 주제로 제11회 발표회 및 제8회 작품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회원들이 한 해 동안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지역사회에 선보이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배움에 대한 성취감과 함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뜻깊은 시간

을 가졌다.

행사에는 홍천군청 신영재 군수,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으며, 500여 명의 이용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자리를 빛냈다. 전시회는 한문서예, 캘리그라피, 서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작품들은 참여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이날 발표회에서는 기타연주, 에어로빅, 퓨전벨리 등 18개 발표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각 팀은 한 해 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며,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진 행사는 노년층이 사회와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감을 느끼고 즐거운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홍천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접종 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 시즌에는 접종 기간이 연령대별로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접종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국가 예방접종 일정]

◆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접종 기간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70~74세 (1950년 1월 1일~1954년 12월 31일 출생)  
: 접종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접종 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보건소, 홍천군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위탁의료기관 21개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ONTENTS

- |                 |                   |                |                |
|-----------------|-------------------|----------------|----------------|
| 01 - 복지관 소식 (1) | 04 - 지역 탐방 (2)    | 07 - 문화 탐방     | 10 - 인물 탐방 (3) |
| 02 - 복지관 소식 (2) | 05 - 지역 탐방 (3)    | 08 - 인물 탐방 (1) | 11 - 노인 돌봄     |
| 03 - 지역 탐방 (1)  | 06 - 지역 행사, 건강 정보 | 09 - 인물 탐방 (2) | 12 - 인생 칼럼     |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SN 사회복지법인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홍천군노인복지관



**복지관 소식 (2)**

**즐거움과 행복한 노후 준비 프로그램, 'AGAIN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4년 10월 1일(화)부터 11월 6일(수)까지 진행된 국민연금 네트워크 지원 사업 'AGAIN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작년 2023년 1기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즐거움과 행복한 노후 준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인 관계 맺기, 정서적 지지체계 형성을 목표로 공예, 원예, 커피 아트, 요리 나눔,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서로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친구를 맺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월 1회 자조 모임을 통해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진행**

카카오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시니어금융교육협회가 협약하여 지원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이 11월 27일(수)부터 12월 11일(수)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어, 60세 이상의 어르신 20명에게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는 총 4명의 강사가 카카오톡 활용법, 금융사기 예방, 간편 결제 및 송금, 모바일 신분증 등록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을 수강한 한 어르신은 "덕분에 스마트폰을 자신 있게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자녀들한테 자랑하니 어디서 배웠는지 물으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기회가 되었다.

**2025년도 쿨한 1학기 노년사회화교육 수강생 모집**

1. **모집장소** : 홍천군노인복지관 사무실
2. **모집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 12월 27일(금)
3. **합격발표** : 2024년 12월 20일(금) 17:00
4. **관련문의** : 033-430-8711, 8782
5. **모집분야**

<b>세대특화</b>	코어요가, 에어로빅, 라인댄스, 사교댄스, 밴딩재활운동, 장수체조 웃음치료, 정리수납, 인지놀이, 바리스타 등
<b>예능활동</b>	노래, 드로잉, 캘리그래피, 풍물놀이, 사물놀이, 음악난타, 서예, 검도교실, 댄스스포츠, 신체밸런스운동, 오카리나, 하모니카 중급, 스틸링드럼 등
<b>교양교육</b>	여행영어, 생활영어, 기초영어, 중국어, 일본어, 명심보감, 문학기행, 사주명리학 등
<b>정보화교육</b>	스마트폰 초급, 스마트폰 중급, 영상제작, 컴퓨터 활용,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활용지도사(자격증) 등

\* 세부과목 변동될 수 있음

**2025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 **모집장소** : 홍천군노인복지관(태학리) 사무실
2. **모집기간** : 2024년 11월 27일(수) ~ 12월 27일(금)
3. **관련문의** : 033-430-8787, 8723, 8732
4. **모집인원**

구분	사업명	인원(명)	사업내용
노인공익활동사업 (구 공익활동형)	홍북이 운영지원	40	경로식당, 말반찬배달, 주차관리, 프로그램실 관리 및 소독, 텃밭관리, 시설 지원 등
	홍북이 돌봄지원	40	지역사회 내 취약가정 안부 및 말벗 지원 등
	홍북이 경륜전수	220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당구, 탁구, 바둑 등 기술 전수
노인역량활용사업 (구 사회서비스형)	홍북이 행복리더	20	복지관 이용안내, 담당자 업무보조, 각 사업단 관리 및 지원 등
	행복나눔빨래방	28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대형이불, 운동화 세탁 지원 / 유유 지원
공동체사업단 (구 시장형)	휴카페	20	복지관 내 카페 음료 제조 및 판매 등

**복지관 생활지원사와 자원봉사자의 일화를 공유합니다!**

**어르신의 위기, 운영숙 생활지원사의 관심으로 대처하다**



<운영숙 생활지원사>

예정된 방문 일정에 맞춰 어르신 댁을 찾았을 때, 그 날 어르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댁을 떠나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려, 이웃집 분께 어르신의 상태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르신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뒤 복지관에도 상황을 보고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무사히 입원한 뒤, 늦은 시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어르신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고,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시길 기울이겠습니다.

**치매예방 교실 자원봉사자 이순옥 님의 행복한 수요일**



<이순옥 자원봉사자>

매주 수요일마다 치매 예방 교실에서 환경을 고려한 즐거운 양말목 공예를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재능 나눔 봉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복지관 작품 전시회를 맞아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키링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누기 위해, 연로해 둔해져 가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열심히 만드셨습니다. 만드시는 과정에서 색상 구분과 단계별 숫자 확인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어르신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시며 행복한 웃음을 지으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봉사자로서 큰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역 탐방 (1)

# 홍천중앙시장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홍천중앙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로, 일상적인 거래는 물론 지역 문화와 공동체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홍천 중앙시장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상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홍천중앙시장은 단순한 상업공간을 넘어,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병기 홍천중앙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 홍천중앙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시장은 대체로 '생활밀착형'과 '문화관광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장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어 인구 유입이 원활하고 발전 가능성도 크지만, 군 단위와 같은 소규모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천은 바로 이러한 특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홍천중앙시장이 속초중앙

시장이나 정선아리랑시장처럼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최근에 마무리하였던 '악자지꼴 홍천 야시장' 사업은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맥주축제, 명품축제, 1000인 음악회 등 다양한 축제를 유치해 왔으며, 트리엔날레 행사, 예술인들의 전시회 및 각종 공연, 찾아가는 영화 영상 등을 전통시장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 체육대회 참여를 통해 젊은 층과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천 중앙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홍총떡(홍천메밀총떡)의 속 재료를 피자나 불고기처럼 젊은 층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변형하는 등 40가지 이상의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

장을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계획이며, '홍천에 가면 주말 장이 열린다.'라는 인식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천중앙시장을 중심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단위로 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놀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옥상에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주말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유도하며, 주말 야시장과 연계하여 확실한 놀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홍천군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준비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는가

홍천군에는 볼거리와 놀거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홍천중앙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신 있게 '여기에서 어떠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군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볼거리와 놀거리를 많이 창출하고, 기존의 시설도 혁신적으로 정비하여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홍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 기자  
(dong-sik@hanmail.net)



지역 탐방 (2)

#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 (홍천읍 희망1리 경로당)



〈남궁창선 회장과의 인터뷰〉

희망1리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남궁창선 회장의 책임감 있고 배려 깊은 지도력 아래 경로당은 지역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대한노인회 홍천읍분회가 주최한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에서는 '모범 경로당' 표창을 받았으며, 10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에서 열린 '강원어르신한마음축제'에 회원들이 홍천군을 대표해 건강체조 종목에 출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침과 경로당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희망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남궁창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첫눈에 들어온 것은 넓고 깨끗하게 정리된 마당이었다. 한켠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정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의 가장 큰 차별점은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또한, 경로당 천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회장님이 사비를 들여 설치한 것이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남궁 회장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다.

**기자** : 경로당 회장직을 맡으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무엇인가요?

**회장** : 공직 생활을 마친 후 고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보람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기자** : 건강 체조를 시작한 이유와 그 과정은 무엇인가요?

**회장** : 약 7~8년 전부터 건강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도 주 2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꾸준히 회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궁창선 회장은 회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월 대보름에는 전통적인 척사 대회를 열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일일 관광으로 기쁨을 주기도 한다. 또한, 희망1리 경로당은 '스마트 경로당'으로 선정되어 인바디와 혈압 측정기, 노래방 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양한 디지털 혜택으로 화상을 통한 건강 체조나 노래 교실 등을 배우고, 정기 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경로당은 이제 단순한 노인 복지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배려 깊은 관리 덕분에 어르신들은 더욱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희망1리 경로당은 지역사회에서도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이복여 기자  
(boy1145@hanmail.net)



〈희망1리 경로당 전경〉



지역 탐방 (3)

# 자연의 가치로 성장하는 마을 (서석면 검산2리 용오름 마을)



강원특별자치도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자연 자원은 주민들의 큰 자산이 된다. 그 덕분에 건강을 위해 강원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잠시 힐링을 위해 찾아오는 가족 여행객들도 적지 않다. 홍천군은 10개의 읍·면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지역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고유의 특성이 풍부하다. 이러한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마을도 있다.

이번에 소개할 마을은 서석면에 위치한 검산2리 용오름 마을이다. 이 마을은 '용오름 계곡'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가꾸어 마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용오름 마을

검산2리 방용문 이장에 따르면, 용오름 마을에는 약 210여 가구, 390여 명의 주민이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하며, 2024년 당해 이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11월 기준 약 15,00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관광 수입으로 각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올해 역시 지난해 못지않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상황이지만, 주차 공간 협소, 오·폐수 처리, 화장실 부족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검산2리 방용문 이장, 우측〉

### 용오름 계곡

‘예전에는 용(龍)이 살았다.’, ‘용이 승천하는 것을 막아 학교 운동회 때마다 비가 내린다.’, ‘마을에 큰 행사 시 용이 비를 내린다.’ 등 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서석면 ‘서봉사’ 뒤 계곡의 너럭바위에는 용이 승천하며 자국을 남겼다는 전설이 있다. 실제로 그 너럭바위 위에는 용이 지나간 흔적처럼 검은 자국이 남아 있어 전설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진다.

검산2리 마을주민들은 이 용의 흔적을 살려 ‘용오름 계곡’이라 명명하였고, 계곡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이 주신 큰 선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용오름마을개발위원회는 이 계곡을 관리하며,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다.

### 서봉사와 마리고리골 악기박물관

검산2리에는 용오름 계곡과 인접한 곳에 ‘서봉사’와 대한민국 최초의 악기 박물관인 ‘마리고리골 악기박물관’이 있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봉사는 송림에 둘러싸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절로, 내년부터는 서봉사 경내의 숙박 시설을 불자들뿐만 아니라 마을을 찾는 이들을 위한 숙소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리고리골 악기박물관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제공하며, 여름에는 야외 음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큰 성황을 이뤘다.

### 자연과 주민 소득의 상생 발전

우리 고장에는 용오름 계곡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장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과 관찰력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본다면,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곳들이 아직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과 행정의 함께 감사하며 연구하고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홍천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산, 계곡,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널리 알려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심연흠 기자  
(simmusic@naver.com)



**지역 행사**

# 우리 민족의 기상이 서린 활쏘기 (제3회 홍천무궁화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활은 원시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 무술이며, 무기이기도 하다. 활을 쏠 때는 손과 몸의 움직임을 넘어서, 정신과 육체, 그 안에 존재하는 '기(氣)'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정신을 통일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과녁을 맞힐 수 없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야 하며, 정신과 육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옛 선비들은 후원(後園)에 활터를 마련하고 시위를 당기며 정신과 육체를 단련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으며, 중국에서는 이를 '동이족(東夷族)'이라 칭했다. 최근 프랑스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실은 우리의 활 전통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 제3회 홍천무궁화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궁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무술로, 심신을 단련하는 중요한 수련이다.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정신적, 육체적 수련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쏘살같이 간다.'라는 표현처럼, 활쏘기는 일상 속에서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니며, 인생의 흐름과 방향을 비유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는 제3회 홍천무궁화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10월 26일(토)부터 28일(월)까지, 홍천의 석화정 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활터에는 4개의 과녁이 설치되어 있었고, 145m 떨어진 과녁을 향해 쏘는 궁사들의 눈은 깊은 집중력과 평정심을 요구했다. 경기장이 펼쳐진 녹색 초원의 잔디는 오랜 시간 동안 활을 쏘는 궁사들에게 눈의 피로를 덜어주었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 궁도의 가치와 미래

이번 궁도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이와 같은 행사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잊혀 가는 전통을 보존하고, 새로운 세대에 그 가치를 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궁도의 핵심 가치인 '정신과 육체의 조화', '심신 단련', '자기 성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겨졌다. 궁도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김순화 기자  
(hereme50@naver.com)

**건강 정보**

# 치매 예방,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최근 나이가 드신 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다. 그중에서도 기억력 저하나 깜빡하는 일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과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홍천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60세 이상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을 시행한다. 특히,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우선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홍천군치매안심센터 검진 방법과 절차

- 검사장소 :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검사주기 : 매년 1회
- 검사시간 : 약 10~20분 소요
- 준비물 : 신분증

###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과 다르다. 건망증은 일상적인 일에서 가끔 기억을 잃는 현상이지만, 치매는 지속적인 기억력 저하와 함께 일상생활에 큰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건망증이 자주 발생하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는 초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면 예방이 가능하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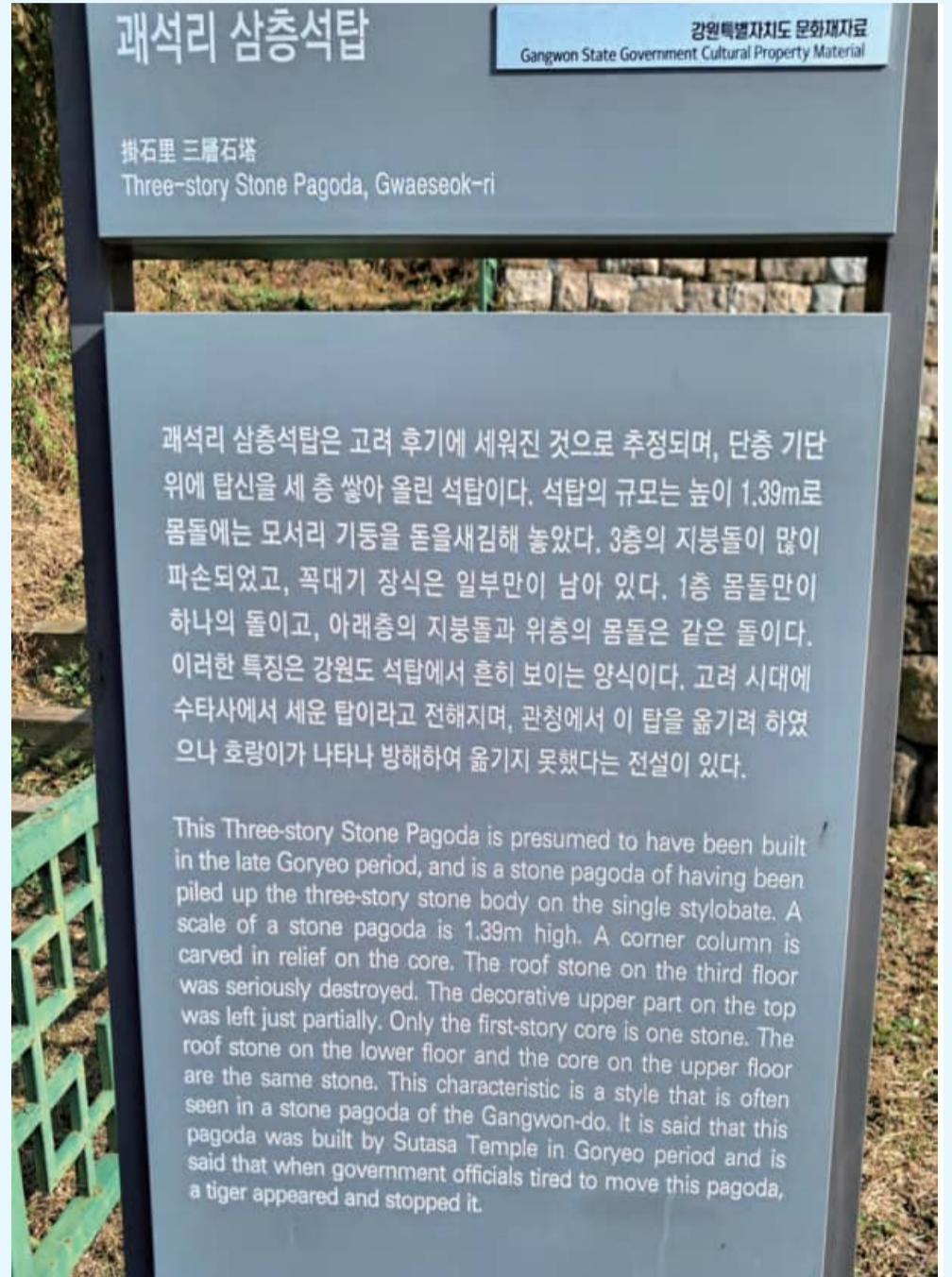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뇌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불안감을 방치하지 말고, 조기 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자.

이선숙 기자  
(ds2sia@hanmail.net)



문화 탐방

# 잊혀 가는 역사의 현장 (홍천군 두촌면 과석리 삼층석탑)



10월 25일, 두촌면에 있는 과석리 용소계곡을 찾았다. 이 계곡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홍천은 그 자체로 깊은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이어져 온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지낸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일깨워주고, 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적들을 통해 그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특히 용소계곡은 그 고요한 숲길을 따라 흐르는 용소천과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덜 닿은 깊은 산골에서 자연과 역사, 전설이 함께 숨 쉬는 곳이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용소계곡을 따라 구름다리를 건너고, 용소천을 끼고 걷는 숲길은 가을의 깊이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청아한 가을 햇살 속에서 흐르는 짙은 청색의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고요함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고요한 평화로움 속에서

도, 잊혀 가는 역사적 유산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았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은혜 깊은 사슴 부부'의 이야기가 담긴 비석, '바늘로 도깨비를 이긴 할머니'의 전설이 있는 장소를 지나게 된다. 오래된 농장과 과수원이 있는 산골짜기에 도달하면 마침내 그 길의 끝자락에서 삼층석탑을 볼 수 있다.

1984년 6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2호로 지정된 삼층석탑은 1층 기단위에 3층 몸체를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의 석탑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석탑은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2층과 3층의 지붕돌은 심하게 손상되어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탑을 보며, 무심히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 탑은 한때 참선의 수양을 묵묵히 이어오던 상징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 세월을 고스란히 견디며,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한없이 고요하고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 탑의 모습에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남아 계속해서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이 되새겼다.

역사는 늘 묵묵히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홍천의 용소계곡과 그 주변의 유적들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공간이다. 잊혀 가는 유적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화영 기자  
(kimhy45021@daum.net)



**인물 탐방 (1)**

# 4-H 연합회 이민서 회장, 청년들이 이끄는 농업의 미래를 꿈꾸다



〈4-H 연합회 이민서 회장〉



〈홍천사과축제 부스운영〉

얼마 전 홍천군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사실이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홍천군은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와 청년층의 유입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홍천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청년층의 이탈과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해졌다. 그 중심에 홍천의 청년단체인 '홍천 4-H 연합회'가 있다.

'4-H운동'은 청소년들이 지(知), 덕(德), 노(勞), 체(體)의 이념을 실천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교육 운동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가지며 영농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 홍천 4-H 연합회 제63대 이민서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홍천 청년들의 목소리와 동향을 살펴보았다.

**기자** : 4-H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회장** : 2015년, 귀농한 어머니의 권유로 4-H를 알게 되었고, 당시 19세에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자** : 회장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리더십 발휘하시나요?

**회장** : 올해 홍천사과축제에 4-H 회원들과 함께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 타르트만 판매하려고 했지만, 단일 품목으로 부족한 것 같아 회원들과 회의를 거쳐 '사과 붕어빵'을 추가했고 두 가지 메뉴 모두 인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솔선수범하며 먼저 앞장서다 보니, 회원들이 믿고 따라와 주는 것 같습니다.

**기자**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회장** : 2024년에는 4-H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홍천의 여러 청년 단체들과 협력해 친목을 도모하고, 청년들을 위한 로고와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선물세트를 만들어 도심에서 '팝업스토어'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민서 회장은 10여 년 동안 4-H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존 회원과 신입 회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회장으로서도 그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협력하고 융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는 4-H의 슬로건인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민서 회장의 리더십과 열정은 홍천의 청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농업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행연 기자

(bonbon2202@naver.com)



인물 탐방 (2)

# 홍천군 서면 윤석영 분회장을 찾아서

11월 5일(화), 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윤석영 분회장과 17개 경로당 회장이 모여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함께 참여하여 경로당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취재했다.

## 서면 윤석영 분회장에 대해



〈윤석영 분회장〉

윤석영 분회장은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교육 분야에서 39년간 재직하며 춘천과 홍천을 오가게 되었다. 2011년에 퇴직한 후에는 자연과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기 좋은 곳으로 점찍어 둔 홍천군 서면 반곡리에 정착하였다.

그 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가 찾아오면서 홍천과 서면의 발전을 위해 서면 분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윤석영 분회장은 서면 분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8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11대 분회장직을 맡아 서면의 노인 복지 향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추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면민이 바라던 소망이 이제야 완성 단계

서면 면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온 분회 사무실과 회의실, 카페 및 도서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2024년 10월 31일 착공식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2025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서면 지역 발전과 더불어 노인 복지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지하에는 목욕탕, 1층에는 분회 사무실과 회의실, 넓은 북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며, 2층에는 동아리방과 대회의실, 옥상에는 휴식 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윤석영 분회장은 “이 시설을 통해 서면 어르신들의 밝은 내일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경로당 회장들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서면의 17개 경로당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노래교실, 치매 예방 교실, 미술, 댄스 등이 있으며, 특히 모곡2리 경로당은 댄스반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서면 경로당 프로그램과 활동

다. 또한, 건강 체조와 스마트폰 교육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 경로당 급식 문제와 개선 방향

서면에서는 농한기인 11월과 12월에 경로당을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급식 매니저 지원이 10월에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석영 분회장은 “군에서 급식 매니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라고 강조했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ever.com)



## 듀오가족농원 김준옥 대표의 귀농 이야기와 배 과수원 성공기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고,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한 번쯤 귀농을 꿈꾸게 된다.

특히 홍천은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귀농·귀촌 특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늘은 홍천에 귀농한 지 10년이 넘은 전 귀농·귀촌 연합회장, 현 듀오가족농원(배 과수원) 김준옥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기 자:** 홍천으로 귀농하시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김준옥:** 제가 귀농을 결심한 시기가 바로 귀농·귀촌이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홍천은 남편의 고향이고, 소시적부터 친하게 지낸 남편의 친구도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인생 후반기를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 자:** 배 과수원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준옥:** 사실 처음에는 시골에서 조용히 쉬며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귀촌을 계획했어요. 하지만 귀농 후 2년 만에 남편의 친구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친구가 운영하던 배 과수원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 과수원 농사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기 자:** 홍천에서 귀농 생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김준옥:** 홍천은 서울에서 가깝고 공기도 맑고, 마을 사람들도 정말 좋아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홍천의 단점은 아니지만, 개인적 경험으로 귀농 초반에는 수입이 거의 없거나, 불규칙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 자:** 배 과수원 운영을 통한 수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김준옥:** 귀농 초기 2년 동안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축해 둔 돈을 쓰며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농업에 관해 공부하고, 배



〈듀오가족농원 김준옥 대표〉

즙과 배 말랭이 같은 가공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에는 팜 파티와 체험 행사를 운영하며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죠. 그렇게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 자:** 봄가을에 진행되는 팜 파티는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김준옥:** 물론입니다! 저희 농원에서는 일 년에 한 그루씩 배나무를 분양받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배꽃이 피는 봄에는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나물 캐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자식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오셔서 배나무 아래서 점심을 먹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즐겁게 지내다 가시기도 합니다.

**기 자:**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준옥:**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귀농을 선택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어떤 작물을 키울지, 가축을 키울지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등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떠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김준옥 대표처럼 초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귀농의 진정성과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앞으로도 김준옥 대표의 홍천 생활이 더 기대되며, 그의 길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리라 확신한다.

정미진 기자  
(pearlchong@naver.com)



노인 돌봄

#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노인들

‘돌봄’이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는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노인 돌봄은 오랫동안 가족, 특히 며느리나 딸이 맡아 온 가사 노동의 일환으로 당연시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과 파멸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 돌봄은 단순히 시간이 소모되는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의 공공성’이 제기되었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돌봄의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족은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의무감과 사랑으로 부모를 돌보고 있다.

### 영화에서 시사되는 노인 돌봄의 문제

영화 ‘로스트 케어’는 노인 돌봄의 비극적 현실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돌봄의 한계를 절감하며 결국 노인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 영화는 가족이 노인을 돌보다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노인 돌봄의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다. 주인공은 노쇠한 아버지를 돌보며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촉탁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주인공이 검찰의 심문을 받는 장면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가끔 음식을 사다주는 검사와의 대조가 그려진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인공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보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는 이 비참함을 막기 위해 돌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이 영화는 노인 돌봄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한다.

### 손주, 자식, 부모를 돌보는 노인들

A 씨(68세, 서울 송파구)는 10년 넘게 외손녀 돌을 돌보고 있다. 딸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을 포기할 수 없어 A 씨가 대신 아이들을 맡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남편이 반대했지만, 결국 A 씨는 손주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결국 A 씨는 건강을 잃고 병석에 누워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손주와 자식을 걱정하며 자신을 희생해 왔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단,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되는 자 제외
-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신청자 신분증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
- 신청방법**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하여 신청(대리신청 가능)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가 되어 어르신들의 병원을 동행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관련문의** 033-430-8753
- 신청방법** 일주일 전부터 사전예약 가능 / 월~금 09~18시

구분	본인부담금 (시간당)	추가 30분당	교통비
일반	5,000원	1,500원	이용자 자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원	500원	

A 씨처럼, 많은 노인이 가족을 돌보다 지쳐 쓰러진다. 일부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노인 돌봄의 비극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일깨운다.

### ‘돌봄의 공동체화’가 필요하다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의 책임으로만 떠맡겨져서도 안 된다.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의 공공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자칫 시장화

로 흐를 경우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완벽한 돌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돌봄에서 가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의 공동체화’가 실현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성문영 기자  
(sunggoodnews@naver.com)



**인생 칼럼**



**석도익**  
소설가

복덕방과 구멍가게는 오랜 세월 우리 일상 속에서 삶의 애환과 추억을 만들어왔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지만, 그 정겨운 이미지와 따뜻한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

복덕방은 주로 정년을 맞은 사람이나 덕망 있는 어르신들이 운영하였고, 마을의 작은 점포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며 장이나 바둑을 두며 소일하곤 했다. 손님이 오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작은 선물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197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복덕방은 부동산 투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불법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 결과

1984년에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어 복덕방은 사라지고, 대신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은 전문화되었고, 복덕방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구멍가게는 마을 골목에서 담배, 막걸리, 성냥, 양

초, 과자, 공책, 연필 등 생필품을 팔며 정을 나누던 작은 가게였다. ‘구멍가게’라는 명칭에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다. 일부는 6.25 전쟁 당시 치안이 불안해 물건을 몰래 사고팔기 위해 가게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은

가게가 너무 작고 좁아서 구멍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산 너머 마을, 작은 오막집 옆에 있는 구멍가게에 들르면 할머니가 퍼주는 막걸리 한 뒷박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눈깔사탕 한 개를 덩으로 주시던 추억이 떠오른다. 그런 구멍가게에서 얻

었던 따뜻한 정은 현대의 대형 마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구멍가게는 대형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으로 대체되었다.

이제는 상품도 풍성하고, 가게와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예전처럼 정을 덩으로 주는 가게나 주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복덕방도 사라지고, 전문화된 공인중개사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복덕방과 구멍가게가 남긴 따뜻한 기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그 시절의 정겨운 이웃과의 소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복덕방과 구멍가게**

**인생 칼럼**



**강정식**  
시인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평생을 보낸다. 독불장군은 없으며, 누구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성립되고, 사회생활이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학식이 풍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독특한 기술로 사회

에 봉사한다. 농사나 어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으며, 다양한 직업들이 모여 사회를 이룬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사농공상의 차별이 존재한다.

조선 왕조 600여 년 동안 유

교의 영향을 받으며, 선비를 최고로 치고, 그 다음이 농업과 상업이었다. 이 구조에서 사는 벼슬아치, 농은 농사와 가축 사육자, 공은 기술자, 상은 상인들을 의미했다. 그 외의 천민이나 서민은 소수였고, 그들에 대한 차별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성품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자일수록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말처럼, 자랑보다는

겸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종종 대학 교수 출신이 ‘자기는 학자’라며 자화자찬을 할 때, 듣는 이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지나친 자기 자랑은 결국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경청하는 것이다. 대

회에서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면 품위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고운 말과 상스러운 말을 구분하고,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좋게 만든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말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다. 그러나 때때로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중요한 건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다**